

CURATORS IP PLATFORM

Hzone은 2008년 설립 이래, 시각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창작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신념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시각예술분야 큐레이터들의 지적 재산권(IP)을 보호하고,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CURATORS IP PLATFORM을 연구했습니다.

플랫폼은 큐레이터들이 자신의 창의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체화되지 않은 기획이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프로젝트도 플랫폼을 통해 IP 를 보호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실현 환경을 마련합니다.

CURATORS IP PLATFORM은 큐레이터들이 단순한 기획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함께 연구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예술적 가치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플랫폼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큐레이터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무대에서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큐레이터들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예술 생태계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본 시도는 큐레이터들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예술 생태계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큐레이터 간 협력과 연구를 장려하며, 창의적 사고와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대합니다.



CURATORS IP PLATFORM

큐레이터 이니셔티브:
플랫폼 런칭

H ZONE

2024. 11. 13 - 11. 15

민세희
서예원
이지언
정이사

Hzone.
서울 중로구 운니동 62-1, 4층

CURATORS IP PLATFORM

H ZONE

Curatorial Initiatives:
A Platform Launch

Isak Chung
Jieon Lee
Sey Min
Yewon Seo

Hzone.
4-5F, 62-1 Uni-dong, Jongno-gu,
Seoul, South Korea

CURATORS IP PLATFORM

CURATORIAL INITIATIVES: A PLATFORM LAUNCH

《큐레이터 이니셔티브: 플랫폼 런칭》은 시각예술 기획 IP 플랫폼, CURATORS IP PLATFORM 출발을 기념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시각예술 기획자 민세희, 서예원, 이지언, 정이사익이 참여하여 플랫폼의 비전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쇼케이스에 앞서 네 명의 기획자는 워크숍을 통해 플랫폼이 예술 생태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획자들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논의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며, 기획자들은 자발적 연구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이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피칭 세션에서는 네 명의 기획자가 연구와 협업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민세희는 데이터 시각화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미디어 환경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생성세대 (生成世代)/Generation that generates》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서예원은 섬과 공동체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탐구하는 《다즐레 / Dagelet》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조명한다. 이지언은 《머리말들 / Prefaces》는 전시 서문을 모으고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상하며, 텍스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제안한다. 정이사익은 전시를 장기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설계한 《가벼운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여, 전시 후에도 공공 자산으로 기능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들은 기획자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창작 및 실험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큐레이터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플랫폼 개설을 넘어, 예술 기획자들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될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CURATORS IP PLATFORM은 창의적 기획의 발화점이자 협력의 허브로서, 동시대 시각 예술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포용하는 생태계를 지향한다.

크레딧

참여 기획자
민세희, 서예원, 이지언, 정이사익

기획·운영
Hzone (이대형, 심재호, 양근배)

후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본 전시와 플랫폼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민세희	민세희는 데이터 시각화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석사를 수료했으며, MIT 센서블 시티랩 연구원, TED 펠로우, 서울라이트 총감독, 구글 아트&컬처 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제10대 원장을 역임하며, 전통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융합을 주도했다.
Sey Min	

《생성세대 (生成世代) / Generation that Generates》

기획 소개

《생성세대 (生成世代) / Generation that Generates》 프로젝트는 기술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성 미디어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소녀”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예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탐구하며, 전시와 워크숍,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동시대의 다양한 감각과 사고를 공유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2023년 《Action, Universe, Derivatives》 전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AI와 창작이 결합된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2024년 AI 커뮤니티케이션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as above/so below》 전시가 진행되고있다.

기획 의도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여성 미디어 작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기술 환경에서 창작자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예술로 탐구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커뮤니티로 나아가기를 목표로 한다.

활용 방법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아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워크숍 및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경험하고, 워크숍과 전시를 통해 창작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구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

목적

- 국내여성 미디어작가 발굴 및 커뮤니티 형성.
- 국내여성 미디어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미디어작가 발굴.
- 국내여성 미디어작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디어아트 커뮤니티 구축.
- 생성세대의 글로벌 브랜드화 (커뮤니티 수익구조).
- 생성을 키워드로 미디어작가의 세대 교류.
- 기술기반 생성예술 소개 및 생성예술에 대한 관심 유도.
- 생성예술의 예술적 비평 환경 구축.

기대 가치

“미디어 소녀” 커뮤니티는 여성 미디어 작가들의 작업을 조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여성 미디어 아트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창작자들이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예원

Yewon Seo

서예원은 독립 큐레이터로서 매체와 태도, 충돌과 모순 속에서 큐레토리얼의 역할을 탐구한다. 그녀는 기록을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식 생산의 도구로 활용하며, 전시를 주요 매체로 삼아 작가와의 협력 속에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낸다. 짧은 메모와 대화, 리서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와 기록의 경계를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즐레 / Dagelet》

기획 소개

《다즐레 / Dagelet》는 ‘섬’을 다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섬의 유무형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은 특정 장소의 과거-현재-미래를 다시 관찰하고 기록하는 개인들의 상호과정에서 시작된다. ‘섬’이 지닌 공동의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공동체 형태의 협업으로서 장소의 다중적인 맥락과 세계를 형성해본다.

기획 의도

‘섬’이라는 다소 고립된 공간은 독특한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문화를 지니며, 이를 둘러싼 삶의 방식과 특성, 기억, 이미지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다즐레 / Dagelet》는 ‘섬’이라는 특정 장소를 다시 관찰하고 기록하는 협력을 제안한다. 섬을 재기록하는 ‘이웃-공동체’들은 섬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설정하고 자신들만의 협력적 형태로 섬에 대한 기억과 시각을 확장하여 공동체의 새로운 이면을 탐구한다.

활용 방법

섬에 개입하는 작가들은 ‘콜렉티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세계관을 만들어 함께 존재하기를 지속하거나 접촉과 교환을 통해 집단에 이웃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공생과 연대를 이야기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콜렉티브 공동체의 탈식민적인 수행과 자립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목적

- 공간 / 장소를 구축하는 집단의 기억과 문화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
- 특정 지리적 환경에서 형성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
- 비판적 견해를 읽어내고 능동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의 시각 아카이브 구축.

기대 가치

이 프로젝트는 집단의 문화와 기억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여, 공동체가 접촉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하나의 시각 아카이브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획자와 작가는 기록을 공유하고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기획 콘텐츠가 공동 자산으로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의 계기가 된다.

이지언

Jieon Lee

이지언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로, 동시대 속에서 신체의 위치와 역할을 탐구한다. 무수히 갱신되는 기술의 이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채택되고 거부되는지를 질료로 삼아 전시를 기획하고 글을 쓴다. 율타비엔날레 주제관 《Hybrid Landscape is Isolated》(국립고고학박물관, 발레타, 몰타, 2024), 《느리고 빠른 이식》(문래예술공장, 서울, 2023), 《물속의 거울잠》(PlaceMak3, 서울, 2021)등을 기획했다.

《머리말들 / Prefaces》

기획 소개

《머리말들 / Prefaces》는 전시 서문을 하나의 지적 재산으로 바라보고, 이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다. 작가와 큐레이터의 시간과 공간이 담긴 서문을 한데 모아 전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덧붙여, 실제 전시가 되지 않은 미완의 서문도 공유하며 오지 않은 전시를 상상하게끔 한다.

기획 의도

이지언은 빠른 회전율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동시대 전시에서 서문이 정보 전달을 넘어, 작가와 기획자의 깊은 고민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문을 취약하거나 부가 자료로 보지 않고, 전시가 끝난 후에도 가치 있는 기록으로 남겨, 큐레이터들 간의 지식과 경험을 확산하고자 한다.

활용 방법

《머리말들 / Prefaces》를 통해 전시 기획자들은 자신의 서문을 업로드하고, 지난 전시를 검색하며 지난 전시를 재조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각 서문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텍스트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대화를 촉진하고, 연구의 배경을 제공한다.

목적

- 휘발되는 서문들을 다시 읽기.
- 전시를 언어화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
- 새로이 쓰는 이에게는 영감이자 연구의 배경을 제공.
- 전시를 목격한 이들에게는 향수와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제안.

기대 가치

프로젝트에서 서문은 작가와 큐레이터의 철학과 미술에 대한 질문을 담은 자산으로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서문을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 새로이 쓰게 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전시를 다시금 보게 하는 짧은 역사적 사료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정이삭

정이삭은 에이코랩(a.co.lab)의 대표 건축가이며, 동양대학교 교수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건축 작업과 연구를 하며, 건축 및 현대 미술 전시에 기획자나 작가로 참여해왔다. 건축이 단순히 건물이나 설계를 뜻하지 않으며, 건축은 생각이자 태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건축의 외연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대 건축의 역할을 고민한다.

Isak Chung

《가벼운 전시 / Lightweight Exhibition》

기획 소개

《가벼운 전시》프로젝트는 전시에 사용된 형상과 재료가 목적을 마치고 난 후에도 비가역적인 부산물로 남지 않는 방식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한 전시 방식을 통해 전시 후에도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획 의도

이 프로젝트는 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전시를 단순한 일시적 이벤트로 보지 않고, 그 메시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전시의 일시성과 자원의 순환 가능성을 실험한다.

활용 방법

이 프로젝트는 전시 후에도 재활용될 수 있는 자재와 구조물을 사용하며, 전시 종료 후에도 가치가 지속되는 형태로 공간을 구성한다. 전시에 사용된 재료들은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전시 종료 후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도록 설계된다.

목적

- 전시 이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전시.
- 전시의 메시지가 존속할 수 있는 형태를 남기는 전시.
- 재료가 재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시 공간 조성.
- 전시의 목적이 전시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 전시.

기대가치

《가벼운 전시》는 건축 및 전시 기획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전시 방법론과 접근법을 제시하며, 건축이 전시에 어떻게 내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또한, 초기 인류의 원시적 감각과 최소한의 자연적 개입을 되새기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